

# ‘범죄도시4’ 1000만 돌파... 韓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 개봉 22일만... 시리즈 중 최단기간 마동석 천만 영화 6편... 국내 최대

배우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15일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올랐다.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했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2’ (1269만명)와 ‘범죄도시3’ (1068만명)에 이어 시리즈에서 세 번째 천만 영화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개봉작 중 세 편의 천만 영화를 낸 시리즈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가 유일했다. 한국 영화로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첫 사례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유일하게 1000만명에 못 미친 ‘범죄도시’ (688만명)를 포함하면 시리즈의 전체 누적 관객 수는 4000만명을 넘어선다.

지난달 24일 극장에 걸린 ‘범죄도시 4’는 개봉 22일째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천만 영화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범죄도시’ 시리즈 작품 가운데 가장 짧았다. ‘범죄도시 2’와 ‘범죄도시 3’는 각각 개봉 25일째, 32일째에 천만 영화가 됐다.

‘범죄도시 4’는 개봉 시점도 좋았다. 영화관 입장

권 할인이 적용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개봉해 첫날에만 82만명을 끌어모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6일)도 흥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범죄도시 4’는 장재현 감독의 ‘파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다. 역대 한국 영화로는 24번째 천만 영화고, 외국 영화를 포함한 전체 개봉작으로는 33번째다.

마동석은 ‘부산행’ (2016), ‘신과 함께-죄와 벌’ (2017), ‘신과 함께-인과 연’ (2018), ‘범죄도시 2’, ‘범죄도시 3’에 이번 작품까지 모두 여섯 편의 천만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됐다. 한국 배우로는 최다 기록으로, 흥행 보증 수표의 입지를 굳혔다.

‘범죄도시 4’는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마동석 특유의 액션과 유머를 부각했고, 마석도의 조력자 장이수 역을 맡은 박지환의 코믹 연기가 호평받았다.

‘범죄도시’ 시리즈 1~3편의 무술감독을 맡았던 허명행 감독이 ‘범죄도시 4’를 연출했다. 올해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황야’에 이어 허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극장가의 관심은 ‘범죄도시 4’의 극장 상영 기간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범죄도시 2’와 ‘범죄도시 3’보다 빨리 천만 영화에 오른 만큼,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베일 벗은 송강호 첫 드라마 ‘삼식이 삼촌’

### 1950~60년대 배경 시대극 디즈니+, 시리즈 1~5편 공개

“피자 아세요? 드셔 보신 분? 제가 유학 시절 피자점 다락방에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유학 시절에, 매일 피자 굽는 냄새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총 같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조차 피자를 구경하지 못했던 1959년 11월 서울, 차기 대권 주자인 야당 정치인의 강연회. 연단에 오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좌우 이념이 아닌 경제 이야기를 꺼낸다.

박두칠은 연단에 선 김산이 자신과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접근해 “당신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손을 내민다. 다른 뜻 닮은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시작된다.

15일 1~5화가 공개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사진)’은 혼란스러웠던 1950~196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브로커 박두칠과 엘리트 공무원 김산이 경제 발전, 즉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손을 잡는 이야기다.

회당 재생 시간 40여분기량의 미드폼으로 제작



돼 비교적 호흡이 빠르고, 폭력을 동반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져 끊임없이 긴장감을 준다.

16부작인 ‘삼식이 삼촌’은 매주 수요일 2회차씩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 달 19일에는 14~16회가 한꺼번에 공개돼 전 회차를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 “두 곡이면 관객 모두 내 편 만들수 있죠”

### 김경호, 30주년 앨범 20일 발매 ‘더 로커’ 신곡·리메이크 10곡 수록 “록 음악에 빠져 한결같이 달려와”

“무대에서 관객을 휘어잡고 요리할 수 있는 힘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어떤 아티스트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죠. 노래 두 곡만으로 모든 관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 자신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로커 김경호(53·사진)는 그의 말대로 노래 두 곡이 끝나기 전에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수다.

수많은 팬이 무대에서 절망거리리는 그의 생머리와 시원한 목소리로 부르는 ‘달려가~’라는 노래 한 소절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의 대표곡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과 ‘금지된 사랑’을 듣고 난 뒤에는 피 끓는 마음으로 록에 빠져들었다.

김경호는 자신도 순식간에 록의 매력에 빠져 30년간 로커의 길을 씀 없이 달려왔다고 말한다.

지난 13일 김경호는 “어려서부터 록 음악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고 지금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그저 내가 잘하는 일을 한눈팔거나 포기

하는 일 없이 이어왔을 뿐”이라고 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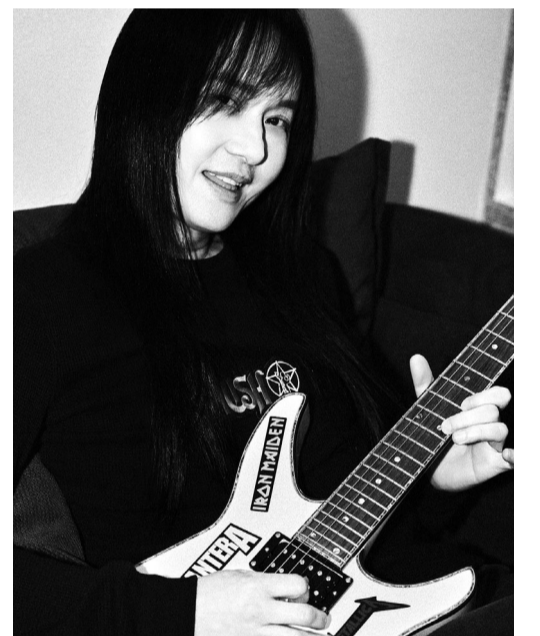
김경호는 오는 20일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정규 11집 ‘더 로커’ (THE ROCKER)를 발매한다. 가장 자신 있는 장르인 1980~1990년대 메탈 음악을 중심으로 신곡 7곡과 리메이크곡 3곡 등 총 10곡을 담았다.

타이틀곡 ‘다시 플레이’를 비롯한 신곡으로 ‘패배를 떠올리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관객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며 “새로운 시도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젊은 세대 청중을 끌어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록곡 중 귀를 사로잡는 노래는 1999년 정규 4집 수록곡 ‘포 2000 에이디’ (For 2000 AD)의 리메이크 버전이다. 원곡은 길이가 8분에 달하는 대곡으로, 반복되는 멜로디 변화로 여러 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리메이크 버전은 곡의 구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김중서, 윤도현, 박완규 등 내로라하는 로커 6명을 피쳐링 진으로 섭외했다. 선후배가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1년 전부터 리메이크를 준비했다는 그의 계획에 모두 흔쾌히 힘을 보탤



고 한다.

김경호는 무엇보다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가수 생활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묻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는 순간을 꼽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먹방이나 텃밭을 기르는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수 목 장

